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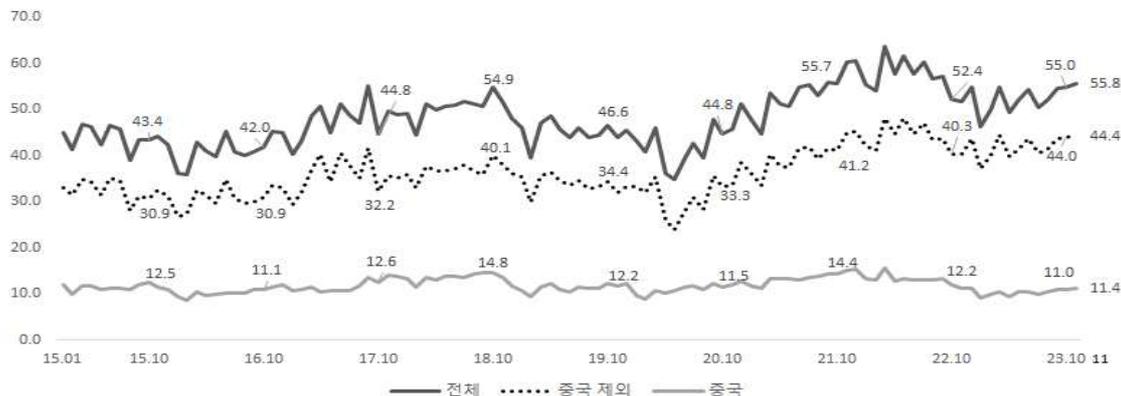
중국과의 무역, 관광 등이 부진하면서 우리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관련 분야의 대중국 의존도도 크게 감소하고 있음. 그러나 중국 이외 국가들에 대한 수출 및 관광객 유치는 빠르게 증가하여 2023년 10월에는 역대 10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이에 힘입어 전체 수출과 관광객 수에 있어서도 코로나 19 수준을 거의 회복하였음. 중국과의 빠른 교역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향후 경제 여건이 개선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출 및 관광 유치를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수출¹⁾과 관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중국과의 교역이 부진해지면서 우리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대중국 의존도도 크게 하락함

-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은 2022년 들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체 수출에서의 중국 비중은 2019년 25.1%에서 2023년(1~11월)에는 19.8%로 크게 축소됨(〈그림 1〉 참조)
 - 대중 수출은 2022년 6월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여 2023년 10월에도 18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음
- 관광의 경우 중국의 일상 전환이 늦어지면서 회복세가 더딘 상황이며, 이에 따라 2016년 전체 관광객 중 49.8%, 2019년 33.9%에 이르던 중국의 비중은 2023년(1~10월)에는 1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그림 2〉 참조)
 - 중국으로부터의 관광객 유입은 2017년 초 사드 이슈와 함께 크게 감소한 후 코로나19와 함께 사실상 중단되었다가 2023년 들어 증가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임

〈그림 1〉 수출 규모 추이(중국 vs 중국 이외 국가)

(단위: 십억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1) 본고의 수출 규모는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가격) 기준으로 작성됨

○ 전체 수출의 경우 2022년 10월 이후 1년간 지속되었던 감소세가 중국 이외 지역에 대한 수출 회복세를 기반으로 2023년 10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었음(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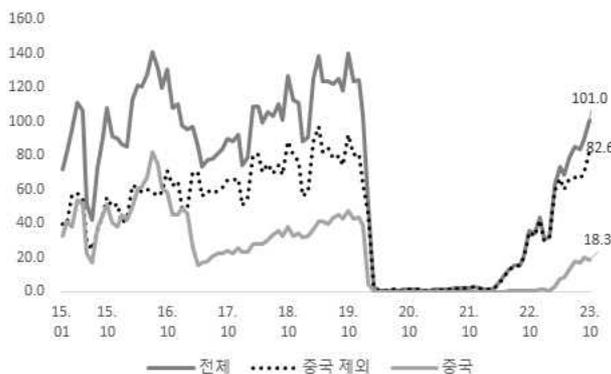
- 대중 수출의 경우 2022년 10월 약 122억 달러에서 2023년 10월 110억 달러로 감소한 반면, 중국 이외 지역 수출은 같은 기간 403억 달러에서 440억 달러로 증가하여 전체 수출 증가율도 5.1%를 기록함
 - 11월에도 중국 이외 지역 수출은 44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0.0% 증가(대중 수출 -0.2% 감소)하여 전체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함
 - 특히, 2023년 10월 중국 이외 지역 수출 440억 달러는 역대 10월 중국 이외 지역에 대한 수출 규모로는 가장 큰 수준이며, 11월의 444억 달러는 21년 11월의 451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
 -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2019년 13.5%(중국 25.1%)에서 2023년(1~11월)에는 18.2%(중국 19.8%)로 확대되면서 중국과 대등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 대중 수출에서 추가적인 감소가 나타나지 않는 한 중국 이외 지역의 수출 회복세가 이어진다면 우리나라 수출은 무난히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됨²⁾

○ 전체 해외 관광객 규모의 경우 2023년 들어 중국 이외 국가에서 크게 증가하면서 10월에는 관광객 수가 월 10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음(그림 2) 참조)

- 2023년 10월 중국 이외 지역의 관광객 수는 82만 6천여 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역대 10월 중국 이외 국가 관광객 규모 중에는 가장 큰 규모임
- 반면, 유학 연수 입국자의 경우 중국 의존도(2019년 기준 63.4%)가 워낙 높아 중국 이외 지역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그림 3) 참조)

〈그림 2〉 관광 목적 입국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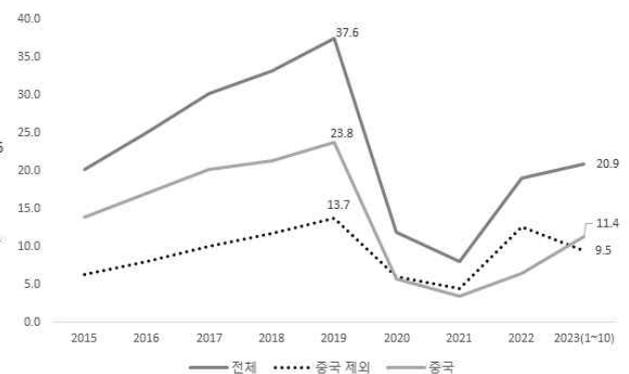
(단위: 월간 만 명)



자료: 통계청

〈그림 3〉 유학 연수 목적 입국자 추이

(단위: 연간 만 명)



주: 유학 연수 목적의 입국자는 계절성이 매우 심해 연도 기준 자료에 기초함

자료: 통계청

2) 2023년 상반기 대중국 수출은 동 기간 대비 -26.1%의 큰 폭 감소를 기록했으나, 2023년 10월과 11월에는 각각 전년 동월 비 -9.5%, -0.2%를 기록하여 감소세가 이미 현저히 둔화된 상태임

○ 향후 우리 경제의 회복과 관련해서 수출의 회복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시장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수출 및 관광 등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분야에서 중국 이외 국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보임
 - 중국 이외 국가들에 대한 수출 및 관광객 유치는 2023년 10월에 역대 10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중국 요인을 제외하면 수출과 관광에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서고 있음을 의미함
- 반면, 주요 교역국들의 2024년 경제성장 전망치가 2023년과 비교해서 뚜렷한 방향성 없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수출 여건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임(〈표 1〉 참조)
 - 2023년 1~11월 기준 수출 비중 상위 20개국의 2024년 경제성장 전망의 경우 20개국 중 중국, 미국, 일본과 같은 핵심 교역국을 포함하는 9개국에서 2023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었음
- 주요 교역국 중 베트남,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성장세 회복이 예측되는 아시아 국가들과 유럽지역의 국가들에 대한 수출선 다변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유럽의 경우 독일, 폴란드, 헝가리, 네덜란드뿐 아니라 영국('23년 0.48% → '24년 0.64%), 프랑스('23년 0.95% → '24년 1.35%) 등 다수 국가에서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수출 다변화를 위한 중요 대상지가 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수출 회복 여부는 교역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해상보험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내 경기의 향방에도 핵심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내수 경기와 관련하여 그 추이에 주목하여야 할 것임

〈표 1〉 우리나라 수출 상위 20개국 경제 전망

(단위: 전년 대비 %)

구분	2022	2023	2024	구분	2022	2023	2024
1 중국	2.99	5.01	4.16	11 독일	1.80	-0.54	0.92
2 미국	2.06	2.09	1.48	12 말레이시아	8.65	3.96	4.27
3 베트남	8.02	4.70	5.80	13 폴란드	5.13	0.56	2.28
4 일본	1.05	1.96	1.03	14 인도네시아	5.31	4.97	4.95
5 홍콩	-3.48	4.39	2.93	15 필리핀	7.57	5.32	5.88
6 대만	2.35	0.84	2.97	16 튀르키예	5.53	3.96	2.98
7 싱가포르	3.65	1.04	2.15	17 캐나다	3.44	1.29	1.61
8 호주	3.69	1.78	1.24	18 태국	2.64	2.70	3.20
9 인도	7.24	6.33	6.29	19 네덜란드	4.33	0.55	1.15
10 멕시코	3.90	3.18	2.14	20 헝가리	4.58	-0.34	3.10

주: 1) 음영은 2024년 경제성장 전망이 2023년보다 높은 경우임
 2) 수출 상위 20개국 순서는 2023년 1~11월 수출 규모 기준임

자료: IMF(2023. 10), "World Economic Outlook"